

인물과 평가어의 관계

- 조국, 진중권 관련 조선일보 댓글의 텍스트 분석 -

한정한(제1저자)* · 엄윤식(공동저자)**

국문초록

이 글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담화의미분석 방법 중 하나인 ‘평가어’를 해당 담화의 ‘인물’ 관계(Tenor) 변수와 관련시켜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담화 참여자인 인물과 평가어가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밝혀보는 게 목적이다. Thompson & Hunston(1999)에 따르면 “평가어란 화자/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체 또는 명제에 대한 태도, 입장, 관점, 감정을 말하는 표현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본고의 평가어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 데이터는 이른바 ‘조국 사태(曹國 事態)’ 이후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텍스트들이다.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한국어에 맞는 평가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입 평가어, 태도 평가어, 강도 평가어의 어휘 목록을 제시해 보았다. 둘째로, 이에 근거하여 해당 댓글에 달린 평가어들을 개입, 태도, 강도 평가어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셋째로, 분석 결과, 조국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종류와 진중권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종류가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이 해당 댓글을 쓰는 댓글러들의 평가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태도 평가어는 두 기사문 모두 행위 평가어가 감정 평가어나 정황 평가어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조국 기사문 댓글은 부적절, 기만(78), 무능(69), 불신(68), 특이(12) 평가어가 적절(1), 정직(0), 유능(0), 신뢰(0), 평범(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에 반해 진중권 기사문 댓글은 적절(31), 정직(1), 유능(5), 신뢰(18)가 훨씬 많았고, 부적절(0), 기만(2), 무능(0), 불신(5), 특이(2) 평가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입 평가어에서는 전자와 후자 모두에서 타인의 의견을 차단하는 단성적 목소리가 많았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댓글러 자신의 주장을 외부 의견과 동일시하거나 외부 의견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다성적 목소리가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이점은 전자의 다성적 목소리가 7.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강도 평가어는 전자에서 세기어가 11.2%(523/59개)이고 후자가 32%(71/32개)로 나왔고, 초점어는 전자에서 1.3%(523/7개), 후자에서 5.6%(71/4개)가 나왔다. 두 인물 모두 강도 평가어 중 세기어의 선택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후자에서 더 그 빈도가 높았다.

[주제어] 평가어(Appraisal), 신문 기사 댓글, 인물(tenor), 태도 평가(attitude), 개입 평가(engagement), 강도 평가(graduation), 한국어교육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han@dankook.ac.kr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72191455@dankook.ac.kr

— | 목 차 | —

I. 서 론	IV. 조국 사태의 전개
II. 선행 연구	V. 평가어 분석의 결과
III. 평가어와 장르, 사용역의 관계	VI.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담화의미분석 방법 중 하나인 ‘평가어(Appraisal)’를 해당 담화의 ‘인물’ 관계(Tenor) 변수와 관련시켜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담화 참여자인 인물과 평가어가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밝혀보는 게 목적이다.

평가어는 Martin & White¹⁾의 출간 이후 담화의미 연구 영역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통번역학에서 한영 번역문장의 평가어를 비교 분석하면서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학에서는 아직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unston & Thompson²⁾에 따르면 “평가어란 화자/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체 또는 명제에 대한 태도, 입장, 관점, 감정을 말하는 표현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또 Lipson³⁾에 따르면 “평가어란 화자 및 저자가 텍스트에 색깔을 입히는 것(the ways speakers/writers color their texts)으로 평가어 체계는 텍스트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감정을 나타내어 텍스트를 다채롭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본고의 평가어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 데이터는 이른바 ‘조국 사태(曹國 事態)’⁴⁾ 이후 조선일보 기사에 딸린 인터넷 댓글 텍스트들이다. 이에 따라서 첫째, 조선일보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 둘째, 검색어의 주인공인 ‘조국’과 ‘진중권’이라는 인물, 그리고 셋째,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댓글러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참여자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둘째인 ‘인물’과 평가어의 상관관계에 집중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⁵⁾ 이를 통하여 ‘댓글’이라는 장르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조국’과 ‘진중권’이라는 인물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평가어를 사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언어 문화

1) Martin, J. R. · White, P. R,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London: Pal Grave MacMillan, 2005.

2) Hunston, S., & Thompson, G,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5.

3) Lipson, M, Exploring Functional Grammar. In D. R. Miller (Ed.), *Functional Grammar Studies for Non-Naive Speakers of English*, Bologna: University of Bologna, 2014, p.86.

4)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언론에 제기된 여러 논란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함.

5) 나머지 참여자 변수인 첫째와 셋째의 평가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어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첫째가 대표적인 보수 신문으로 평가되는 조선일보 기사가 어떤 평가어 패턴을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셋째는 해당 인터넷 기사의 댓글러들이 보이는 특정한 평가어 패턴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를 이해하고, 한국어의 의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본고의 의의를, 3장에서는 평가어와 장르, 그리고 사용역의 관계를 설명한다. 특히 한국어의 평가어를 개입 평가, 태도 평가, 강도 평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이면서 신문 기사 내용인 ‘조국 사태의 전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5장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신문 기사의 댓글을 평가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본고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II. 선행 연구

평가어에 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로는 마승혜의 연구⁶⁾가 있다. 그녀는 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 성향의 상관관계를 원어와 번역어의 평가어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번역자의 모국어를 따라 평가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의미운율(semantic prosody)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한 연구이다. 그 밖에도 우경조의 연구⁷⁾에서는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체계기능문법의 동사성과 평가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평가어 중에서도 주로 태도 평가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홍은영의 연구⁸⁾에서는 『제인 에어』의 번역 분석의 도구로, 황시내의 연구⁹⁾에서는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공손성 연구의 분석 도구로 공손 이론과 대우법과 함께 평가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힘(power), 그중에서도 ‘태도’와 ‘강도’ 평가어를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주로 영어 원서와 한국어의 번역어의 비교 연구들이고, 직접 한국어 평가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영어 평가어를 활용하여 번역의 의미와 색깔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평가어를 번역의 분석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한편, 이주리아의 연구¹⁰⁾에서는 한일 기사문의 평가어 번역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다른 연구들이 대체로 감정 평가어 혹은 강도 평가어의 번역어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데에 반해 그녀는 개입 표현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반현의 연구¹¹⁾에서는 한국 신문 사설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어의 사용 비율과 양상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긍정/부정/중립에

-
- 6) 마승혜, 「문학 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 성향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 우경조, 「에코페미니즘적 주제의식 관점에서 본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 분석 - 체계기능문법(SFG)의 ‘동사성(Transitivity)’과 ‘평가어(Appraisal)’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 홍은영, 「평가어를 중심으로 한 『제인 에어』(Jane Eyre) 번역 분석」,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9) 황시내,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공손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0) 이주리아, 「한일 기사문의 평가어(appraisal) 번역 - 개입(engagement) 표현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7: 2, 2015.
 11) 반현, 「한국 신문 사설의 정치적 성향 분석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4: 3, 87-92, 2018.

한정하여 검토했다. 진염평·진연의 논문¹²⁾에서도 태도평가를 중심으로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고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이경림·강대중·정제영의 연구¹³⁾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문 사설의 평가어 사용을 바탕으로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 대한 프레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녀는 평가의 범위를 태도 평가어와 개입 평가어로 한정하였으며, 평가어 분석 역시 영어의 평가어를 기본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연구의 목적이 평가어의 사용 양상 그 자체라기 보다는 평가어를 통한 신문 사설의 프레임, 즉 사회학적 연구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평가어 연구는 대체로 비교언어학 혹은 번역학 쪽에서 주로 다루어 왔으며, 그 연구 분야 역시 한국어의 평가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평가어를 바탕으로 번역 텍스트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 등 번역학, 사회언어학적 도구로써 연구하였다.

Ⅲ. 평가어와 장르, 사용역의 관계

본고의 주제인 평가어는 담화의미 층위에서 작용하는 연구 분야이다. 어휘론이나 문법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어휘나 문장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면, 담화의미론은 문장 내외 성분들이 해당 문장 범주를 넘어서 담화 층위에 쓰이는 사용역 변수(register variables)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본고의 경우에는 평가어가 인물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고의 연구방법론인 체기능언어학(SFL)에서는 언어를 다층(多層)의 복합적인 기호체계로 본다. 이에 따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맥락(context), 즉 장르(genre)가 사용역(registers) 층위로 실현되고, 사용역은 담화의미(discourse semantics) 층위로 실현되고, 담화의미는 다시 어휘문법(lexico-grammar) 층위로 실현되고, 어휘문법은 다시 음운 층위, 음성 층위로 차례대로 실현된다.¹⁴⁾ SFL에서 장르란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용역의 요소인 관계, 장, 양식의 선택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나타나는 시스템을 말한다.¹⁵⁾ 그리고 다시 사용역은 관계(tenor), 장(field), 양식(mode)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¹⁶⁾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구체적인 언어의 실현은 항상 여러 층위에서 총체성을 띠고 표현되므로, 개별 층위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경계를 따로 설정해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 대상들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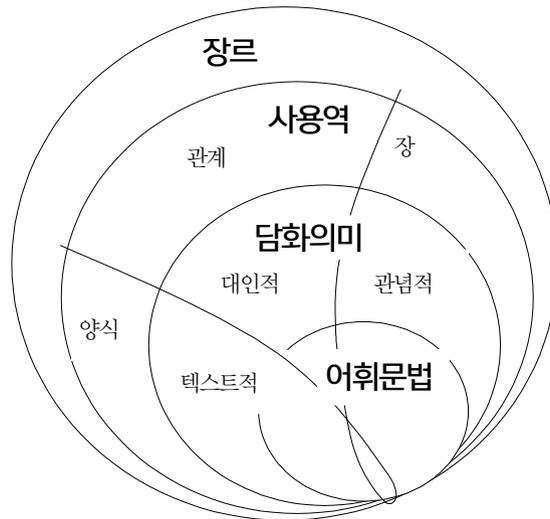
12) 진염평·진연, 「태도평가 관점에서 본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 한국어문교육 31, 2020.

13) 이경림·강대중·정제영,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다룬 신문 사설의 프레임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30 No.2, 2020.

14) 이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며,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가 된다.

15) Genre is a system comprising configurations of field, mode and tenor selections - a particular pattern of the registers(field, tenor, mode).((Marign & White 2005: 32).

16)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Routledge, 2014, p.26.



〈그림 1〉 장르는 사용역의 요소들(관계, 장, 양식)이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 시스템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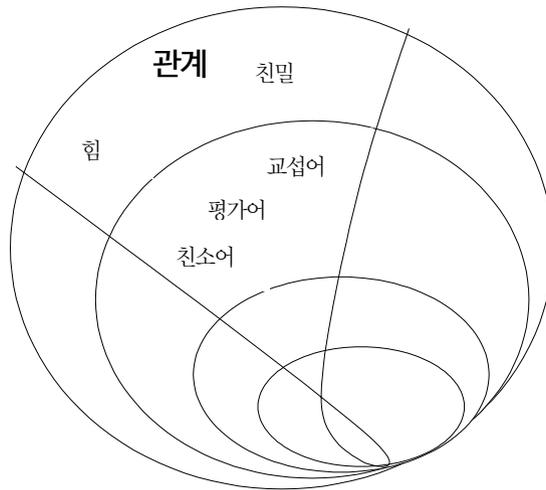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러한 계층적 언어 분석은 학교 문법에서 전통적으로 견지해 왔던, 텍스트나 담화를 문장의 상위 단위로 보는 관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 의하면 텍스트와 문장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아니다. 즉 텍스트는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의해 실현될 뿐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담화 의미의 가장 상층이고, 문장은 어휘 문법의 가장 상층이다. 그런데 어휘 문법이 '문장/절-구/군-형태소'로 세분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텍스트는 별도의 세분화된 층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한 층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상층인 사용역이나 장르에 따라 텍스트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아래 〈그림 2〉는 관계(Tenor) 변수와 관련이 있는 세 가지 담화 의미 영역(교섭어, 평가어, 친소어)을 좀 더 자세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역의 '관계' 변수는 친밀(Solidarity)과 힘(Power)으로 더 하위 분류되며, 이것들이 일정한 결합 패턴을 형성하면서 교섭어(Negotiation), 평가어(Appraisal), 친소어(Involvement)에 영향을 미친다. 교섭어란 담화의 대인관계적 측면인 발화기능(speech functions)과 서법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Eggins & Slade의 연구¹⁸⁾에서는 일상대화에서의 대인관계적 말두기(move, 서법교환단위)를 분석한다. 그리고 친소어는 담화 참여자의 친밀성, 소원성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을 연구한다. 주로 호칭어, 비속어, 간투어, 속어, 은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⁹⁾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제인 평가어에 대해서는 아래 3.1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7)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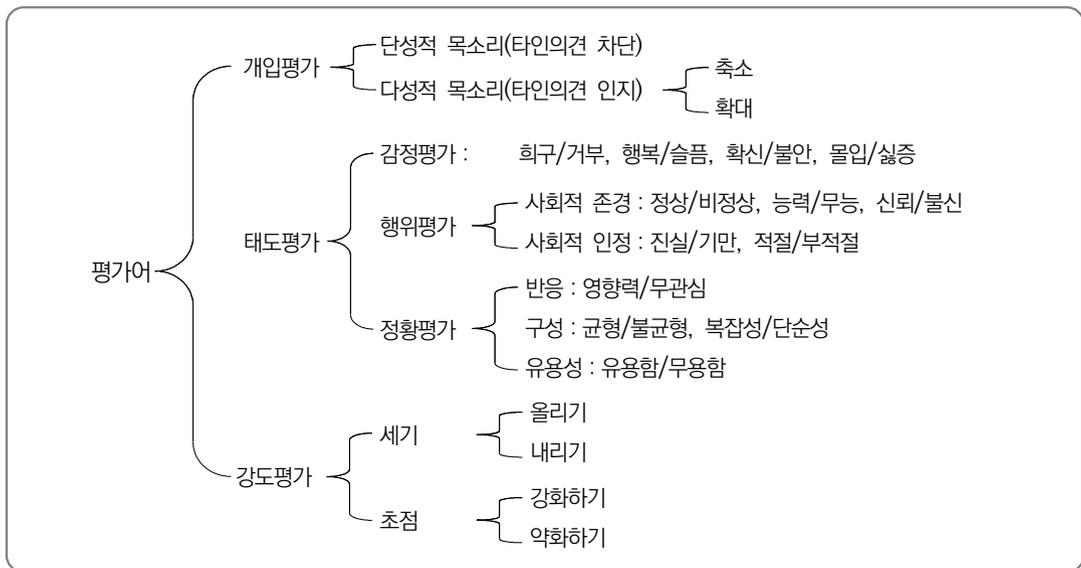
18) Eggins, S. & D. Slade, 1997, *Analysing Casual Conversation*. London: Cassell, 1997.

19)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33.



〈그림 2〉 관계(tenor) 사용역과 대인적 의미 시스템(교섭어, 평가어, 친소어)²⁰⁾

1. 평가어 체계



〈그림 3〉 평가어의 종류

20) Martin, J. R. · White, P. R, *Ibid.* 2005, p.32.

Lipson은 평가어에 대해 “사물, 사람, 행동, 사건, 상황, 의견에 대해 자신은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필자의 정서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라고 했다.²¹⁾ 이렇듯 다채로운 감정으로 텍스트에 색깔을 부여하고 다양한 느낌과 평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언어적 자원이 바로 평가어이다. Martin & Whi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평가어는 크게 ‘개입(engagement)’, ‘태도(attitude)’, ‘강도(gradation)’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입 평가(engagement)

〈표 1〉 한국어 개입 평가어²²⁾

개입 평가(Engagement)			
단성적 목소리	다성적 목소리(hererogloss)		
	판단유보(entertain) : (~로 보인다)	객체화(attribute : ~에 따르면)	
	~ㄴ 것이다. ~것으로 보인다 ~ㄴ 수 있다 ~로 예상된다 ~이 예상된다 ~로 전망된다 ~ㄴ 전망이다 ~로 추정된다 ~ㄴ 모양이다 ~ㄴ 가능성이 생겼다 ~로 해석된다 ~로 풀이된다 ~고 읽힌다 ~는지는 의문이다 ~지는 미지수다 ~과 다름없다	객체화(acknowledge, 1) : 판명, 판단, 여론. 외부로부터의 정보임을 표현함	객체화(distance, 2) : 인용문
		판명 ~로 밝혀졌다 ~로 나타났다 ~로 알려졌다 판단 ~로 전망했다 ~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다 ~로 내다봤다 ~로 예상했다 ~로 보고 있다 여론 ~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는 예기가 나오고 있따 ~라는 반응을 보였다	(감정이입) 주관적 술어
		주관적 인용 ~고 비난했다 ~고 해명했다 ~고 설명했다 ~고 발표했다 ~며 공격했다 ~고 강조했다	객관적 인용 ~고 말했다 ~고 한다 ~고 덧붙였다

21) Lipson, M. *op. cit.* 2014, p.70.

22) 이주리에, 앞의 논문, 2015 평가어 목록 재구성.

‘개입 평가’는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바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stance)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어들이다. 즉,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가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즉, “다른 화자 및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와 비교해 같은 입장에 있는지, 반대인지, 확실치 않은지, 중립적인지를 보여주는 것”²³⁾이다. 이런 ‘개입’에 속하는 평가어를 크게 나눠 보면, 타인의 의견을 차단하여 단언하는 ‘단성적 목소리’(monogloss)와 다른 의견을 인지하여 포함 시키는 ‘다성적 목소리’(heterogloss)로 나누어진다. 위 <표 1>은 개입어를 한국어로 예시한 것이다.²⁴⁾

다성적 목소리는 ‘확대(expand)’와 ‘축소(contract)’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저자(화자)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 판단유보(entertain : ~로 보인다 등)와 타인의 의견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객체화(attribute : ~라고 말했다, ~에 따르면 등)가 있다. 이들은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둘 다 ‘확대’의 예가 된다. 반면에, 타인 의견 인지 중 어떤 사실에 대해 저자(화자)가 반대하거나(disclaim : 하지만, ~지 않다 등) 또는 적극 지지하는 표현(proclaim : 물론, 당연히 ~하다 등)을 씀으로써 다른 입장에 대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 시키는 경우가 있다.

(2) 태도 평가(attitude)

‘태도’ 평가는 먼저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 평가어(Affect)’, 인물과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행위 평가어(Judgment)’,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정황 평가어(Appreciation)’의 표현으로 세분된다. 먼저 ‘감정’ 평가어는 행복/슬픔, 심리적 안정/불안, 만족/불만족 등의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자원을 표현하는 평가어이다.

1) 감정 평가어(Affect)

감정 평가는 슬픔/행복, 거부/희구, 싫증/몰입, 불안/확신 총 네 개의 영역, 여덟 개의 극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다시 크게 실현성 감정 평가와 비실현성 감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Martin & White의 연구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문법적으로 희구적인 정신적 과정과 감정적인 정신적 과정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비실현성 감정 평가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트리거(Trigger)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슬픔/행복은 실현성 감정 평가에 해당하며, 거부/희구, 싫증/몰입, 불안/확신은 비실현성 감정 평가에 해당한다. Martin & White의 연구²⁵⁾에서는 이 감정 평가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⁶⁾

23)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32.

24) 이주리에, 앞의 논문, 2015의 표 재구성.

25)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p.49~51.

26) 본고는 Martin & White(2005)의 영어 예시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예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이하 표도 마찬가지다.

〈표 2〉 한국어의 실현성(Realis) 감정 평가어

실현성(Realis) 감정 평가어		
1 슬픔/행복		
1.1 슬픔	(감정이) 차오르다	(타고난) 성질
1.1.1 (나의) 고통	whimper 흐쩍이다 1. 흐쩍이다, 흐쩍이며 말하다 2. 흐쩍거림 울다 1. (기분이 안 좋거나, 아파서) 울다 2. 외치다 3. 비명 울부짖다 1. (슬픔, 통증 때문에) 울부짖다 2. 통곡하다, 흐느끼다 3. (큰 소리로) 투덜거리다 4. 울부짖음	down 약해지다 1. 쇠약해져, 건강이 나빠져, 풀기가 죽어 2. (기세 등이) 약해져 3. 패배 (굴복) 상태로 우울한 1. 슬픈, (사람이) 슬퍼하는 2. 애석한, 통탈할 비참하다 1. 비참한 2. 비참(우울)하게 만드는 3. 항상 통한, 성질나쁜 4. 아주 적은, 보잘 것 없는
1.1.2 (타인에 대한) 반감	rubbish 쓰레기 (같은) 1. 쓰레기 (같은 것) 2. (질이) 형편 없는 것 3. 험뜯다, 혹평하다 구박하다, 학대하다 1. 암용, 오용 2. 학대 3. 욕설(하다) 비난하다 1. 매도하다 (욕하다) 2. 비난하다	dislike 싫어하다 1. 싫어하다 2. 반감, 싫음 미워하다 1. 몹시 싫어하다 2. (사람을) 미워하다 3. (사람에 대한) 혐오 혐오하다 1. (특히 도덕적인 이유로) 혐오하다
1.2 행복	(감정이) 차오르다	(타고난) 성질
1.2.1 환호	chuckle 1. (빙그레, 싱긋) 웃다	cheerful 1. 발랄한, 쾌활한
기쁘고 반가워서 소리를 지름	laugh 1. (소리내어) 웃다 2. (일을 성공적으로 하여) 웃다 3. 웃음(소리) rejoice 1. 크게 (대단히) 기뻐하다	2. 생기를 주는, 쾌적한 buoyant 1. 경기가 좋은, 활황인 2. 자신감에 차 있는 (물에 떠 있는, 부력이 있는) jubilant 1. 승리에 넘치는 득의양양한, 의기양양한

1.2.2 호감	shake hands 약수하다 hug 껴안다, 포용하다, 끌어안다, 포용, 껴안기 embrace 껴안다, 포용하다 (생각, 제의 등) 열렬히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fond 1.(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 (좋아하는) 2.오랫동안 (예, 음악)을 즐기다 3.(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잘하는 (좋아하는) 4.다정한, 애정어린 loving 1.애정어린, 다정한 adoring 흠모하는
----------	---	---

〈표 3〉 한국어 비실현성(irrealis) 감정 평가어

비실현성(irrealis) 감정(Affect) 평가어		
거부/희구 dis/inclination	(감정이) 차오름	(타고난) 성질
거부	tremble	wary
fear	걱정, 두려움으로 가슴이 떨리다, 가볍게 흔들리다 걱정, 두려움으로 가슴이 떨림, 가볍게 흔들림 shudder 공포, 추위 등 떨다, 몸서리치다 cower 겁을 먹고 몸을 숙이다, 웅크리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fearful 1. 걱정(하다), 우려(하다), 염려(하다) 2. 무시무시한, 무서운 3. 끔찍한 terrorized 공포에 떨게(사로잡히게) 하다
희구	suggest	miss
desire	1.(아이디어, 계획) 제안하다 2.(사람, 물건, 방법 등) 추천하다 3. 시사하다 request 1.(격식을 차려 정중히 하는) 요청(하다) 2. 요구사항 demand 1.(강력히 요청하는) 요구 (사항) 2.(어렵거나 힘이 드는)일, 요구(되는 일) 3. 요구하다, 강력히 묻다, 따지다	그리워 (아쉬워) 하다 long for 열망하다, 갈망하다 yearn for 동경하다
싫증/몰입 dis/satisfaction		
싫증/몰입		

실증		
ennui 따분함	fidget (초조, 지루함, 흥분 등) 꼼지락거리다가만히 못 있다. yawn 하품하다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다. 하품하다 tune out 을 듣지 않다 [무시하다]	bored 지루해하는, 따분해하는 fed up 지긋지긋함, 신물 난 exasperated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몹시 화가 난 격분한
displeasure 불쾌감	caution 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 [경고를 주다] scold (특히 아이를) 야단치다, 꾸짖다 castigate 크게 책망하다, 혹평하다	cross 짜증 난, 약간 화가 난 angry 화난, 성난, 별경계 풀은, 잔뜩 찌푸린 furious 몹시 화가 난, 맹렬한
몰입(satisfaction)		
interest 흥미	attentive 주의[귀를 기울이는, 배려하는, 신경을 쓰는] 호기심을 기울이는 busy 하느라 바쁜, 에 열심인 flat out 죽어라고 [죽자사자] 딱 부러지게, 완전히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absorbed 에 몰두한, 빠져 있는 engrossed 몰두한
admiration 감탄, 존경	pat on the back 격려, 칭찬, 축복하다 등을 토닥거리다, 등을 쓰다듬다 compliment 칭찬하다, 칭찬 reward 보상, 보답, 사례하다.	satisfied 만족하는, 흡족해하는, 받아들이는, 납득하는 impressed 인상깊게 생각하는, 감명감동 받은 proud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을 갖는
불안/확신 insecurity/security		
insecurity 불안		
disquiet 동요	restless 1. 지루하거나 따분해서 가만히 못 있는 2. 제대로 쉬지 못하는 twitching	uneasy 1.(마음이) 불안한, 우려되는 2.(상태 등이) 불안한 3. 어수선한, 뒤숭숭한, 불편한

	1.잡아당기는 2.잡아당기기 shaking 1.흔들기, 흔들림, 동요, 떨림	anxious 1.불안해하는, 염려하는(나) 2.불안하게 하는, 불안해 보이는(타인) freaked out 1.환각제를 먹다, 환각 증상이 있다. 2.환각증상이 생기게 하다, 몹시 흥분시키다. 3.자제력을 잃다, 잃게 하다.
surprise 놀람	start 흠칫 (깜짝) 놀라다, make her start cry out (아픔, 공포, 놀람 등) 소리를 지르다 faint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러운	taken aback 깜짝 놀란 surprise 놀란, 놀라운 astonished 깜짝 [크게] 놀란
security 확신		
confidence 자신(감)	declare 1.분명히 말하다, 언명하다, 선언하다 assert 1.(강하게) 주장하다 2.(단호하게) 자기 주장하다 3.(자신의 권리, 권위 등) 확고히 하다 proclaim 1.선언하다 2.분명히 보여주다 3.(...)의 표시이다. 징후이다	together 1.조직적이고, 확신에 찬, 흔들림 없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전적으로 확신하는 assured 자신감 있는 확실한, 확신하다는 (무엇을) 보장 받는
trust 신뢰	delegate 1.(권한, 업무 등) 위임하다 2.뽑다, 선정하다 commit 1.(한 사람에게만) 전념[충실]하다 2.(일, 활동 등에) 전념[헌신]하다 entrust (일을) 맡기다	comfortable with (...)이 마음에 드는 confident in/about (...)에 대해 자신만만한 trusting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는)

2) 행위 평가어(Judgment)²⁷⁾

행위평가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 방식, 성격을 평가하는 언어 자원이다. 이것은 다시 사회적 존경과 사회적 인정으로 양분된다. 사회적 존경은 평범성, 능력, 신뢰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평범성은 특별하지 않은

27)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p.52~53 참조.

정도, 능력은 유능함의 정도, 그리고 신뢰성은 믿을 만한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인정은 진실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진실성은 그 인물이 얼마나 진실한가, 적절성은 그 인물이 얼마나 윤리적인가를 평가한다.

〈표 4〉 한국어 행위 평가어

행위 평가 (Judgment)		
사회적 존경 social esteem	긍정적(존경, 칭찬, 감탄)	부정적(비판, 비난하다)
normality / special 평범/특이	lucky, fortunate 1. 운이 좋은, 행운의, 2. 다행한, 3. 행운을 가져다주는 charmed 1. 보통의, 평범한, 정상인 normal 2. 평균의, 일반적인, average everyday 1. 유행하는, 인기있는 in fashionable 2. 전위적인 avant-garde	unfortunate 1. 운이 없는, 불운한, 불행한, 2. 유감스러운 2. 불운한 사람 tragic 1. 이상한, 특이한, 가끔의 odd 2. 독특한, peculiar eccentric 괴짜인, 별난, 기이한 1. 구식의, 구시대의 dated 2. 세련되지 못한, 지저분한, 너저분한 daggy 3. 역행하는 retrograde
capacity 유능/무능	powerful, vigorous, robust 1. 영향력 있는, 유력한 2. 강력한, 매우 효과적인; 강한, 강렬한 3. 원기 왕성한, 팔팔한, 튼튼한, 탄탄한 insightful, clever, gifted 1. 통찰력 있는; 영리한, 2. 똑똑한, 재주가 있는, 기발한, 재치 있는 3. 재능이 있는, 좋은 것은 지닌 balanced, together, sane 1. 균형잡힌, 안정된, 1. 조직적이고 확신에 찬, 흔들림 없는 1. 제정신인, 온전한, 분별있는, 온당한	mild, weak, wimpy 1. 가벼운, 약한, 힘이없는; 나약한, 우둔한, 겁쟁이의, slow, stupid, thick 1. 느린, 더딘, 천천히 움직이는, 완행의 2. 어리석은, 멍청한, 우둔한, 바보같은 3. 우둔한, 미련한 flaky, neurotic, insane 1. 껌짜인, 뭇 잘 잊어먹는 1. 진진공공하는, 노이로제 걸린, 신경증에 걸린 1. 정신 이상의, 미친,
tenacity(resolve) 신뢰/불신	plucky, brave, heroic 1.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1. 용감한, 용감히 대면하다 1. 영웅적인, 투지가 넘치는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tireless, persevering, resolute 1. 지칠줄 모르는	rash, cowardly, despondent 1. 경솔한, 성급한, 1. 겁이 많은, 비열한, 비겁한, 1. 낙담한, 실의에 빠진 unreliable, undependable, 믿을 수 없는, weak, distracted, dissolute 1. 약한, 힘이 없는

사회적 인정 social sanction	1. 인내심이 강한, 불굴의 1. 단호한, 확고한	1. 산만한, 사란한 1. 방종한, 방탕한,
veracity (truth) 진실성 정직/기만	truthful, honest, credible 1. 정직한, 진실한 1. 솔직한, 순수해 보이는 1.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만한, real, authentic, genuine 1. 진짜의, 현실적인, 실제의, 실재하는 1. 진본인, 진품인 1. 진품의, 진실한, 진심어린 frank, direct 1. (남을 불편하게 만들수도 있는) 솔직함 1. 딱부러지는, 단도직입적인	dishonest, deceitful 1. 정직하지 못한 1. 기만적인, 부정직한 glitzy, bogus, fake, 1. 아한, 화려한, 현란한 1. 가짜의, 위조의 1. 거짓된, 모조인조의 deceptive, manipulative 1. 기만하는, 현혹하는 1. (교묘하고, 부정직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하는데 능한, (cf. 기계 등을 능숙히) 다루는, 조작의
propriety(ethics) 적절/부적절	good, moral, ethical 적절한, 도덕적, 윤리적 law abiding, fair 적법한, 공정한	bad, immoral, evil 나쁜, 부도덕, 비윤리적 corrupt, unfair 타락한, 불공정한

3) 정황 평가어(Appreciation)²⁸⁾

정황 평가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가리킨다. 이것은 만들거나 주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보통 정황 평가는 상황에 대한 ‘반응(관심을 끄는지, 흥미를 끄는지)’, ‘구성(균형 잡혔는지, 복잡한지)’, 그리고 ‘가치(혁신성, 진정성, 시기 적절성)’로 구성된다. 이것은 현 상황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적절한 대응을 결정한다.

〈표 5〉 한국어 정황 평가어

	정황 평가(Appreciation); 사물, 상황, 현상에 대한 평가	
	긍정적	부정적
Reaction(반응기준): did it grab me?	arresting, captivating, engaging 1.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매력적인	dull, boring, tedious, staid 1. 따분한, 재미없는; 흐릿한, 칙칙한; 둔해지다, 약해지다
평가 대상이 내 관심을 끄는가? (impact)	1.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는 1. 호감이 가는, 매혹적인	1. 재미없는, 지루한 1. 지루한, 싫증나는

28) Martin, J. R. · White, P. R, *op. cit.* 2005, p.56 참조.

	<p>fascinating, exciting, moving</p> <p>1. 대단히 흥미로운, 매혹적인</p> <p>1. 신나는, 흥미진진한, 흥분하게 하는</p> <p>1. (슬픔, 연민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p>	<p>1. 고루한, 고리타분한, dry, ascetic, uninviting</p> <p>1. 금욕적인,</p> <p>1. 마음을 끌지 못하는, 매력 없는</p>
<p>Reaction:</p> <p>did I like it?</p> <p>내가 그 대상을 좋아하는가?(quality)</p>	<p>ok, fine, good</p> <p>lovely, beautiful, splendid</p> <p>1. 아름다운, 어여쁜, 사랑스러운</p> <p>1. 아주 좋았기뻐, 멋진, 훌륭한</p> <p>1. 정말 좋은, 아주 인상적인</p> <p>appealing, enchanting, welcome</p> <p>1. 매력적인, 흥미로운; 호소하는, 애원하는</p> <p>1. 황홀케 하는, 고혹적인</p> <p>1. 맞이하다, 환영하다, 반가운</p>	<p>bad, yuk, nasty</p> <p>plain, ugly</p> <p>1. 숨김 없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p> <p>1. 못생긴, 추한, 보기 싫은; 혐악한, 추잡한</p> <p>repulsive, revolting</p> <p>1. 역겨운, 혐오스러운; 밀어내는</p> <p>1. 역겨운, 혐오스러운,</p>
<p>composition:</p> <p>(구성 기준)</p> <p>did it hang together</p> <p>얼마나 정합적인지?</p> <p>(balance)</p>	<p>balanced, harmonious, unified</p> <p>1. 균형잡힌, 안정된</p> <p>1. 사이가 좋은, 조화로운, 보기 좋은</p> <p>1. 통일된, 관통하는</p> <p>symmetrical, proportioned</p> <p>1. 대칭적인</p> <p>1. 명제적, 논리적</p>	<p>unbalanced, discordant</p> <p>1. 평형 [균형]을 잃은, 불균형한</p> <p>1. 조화 [화합]을 이루지 않는; 불협화음, 귀에 거슬리는</p> <p>contorted, distorted</p> <p>1. 왜곡된, 일그러진</p> <p>1. 비뚤어진, 곡해된, 왜곡된, 기형의</p>
<p>composition:</p> <p>구성 기준</p> <p>was it hard to follow?</p> <p>이해하기 어려운지?</p> <p>(complexity)</p>	<p>simple, elegant</p> <p>1.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소박한, 간소한</p> <p>1. 우아한, 품위 있는, 명쾌한, 멋들어진</p>	<p>ornamental, extravagant</p> <p>1. 보기 좋은 [장식왕의],</p> <p>1. 사치스러운, 과장된, 낭비벽이 있는</p>
<p>valuation</p> <p>가치</p> <p>was it worthwhile?</p> <p>얼마나 가치 있는가?</p>	<p>penetrating, profound, deep</p> <p>예리한, 심오한, 깊은</p> <p>challenging, profound, deep</p> <p>1. 도전적인, 도전의식을 불돋우는</p> <p>1. 심오한, 엄청난, 깊은</p> <p>innovative, original, unique</p> <p>1. 획기적인,</p> <p>1. 원래의, 독창적인, 원본의</p> <p>1. 유일무이한, 독특한, 특별한,</p>	<p>shallow, insignificant, derivative, conventional, prosaic</p> <p>얕은, 중요하지 않은, 새롭지 않은, 평범한, 단조로운(재미없는)</p> <p>1. 얕은, 알팍한, 피상적인</p> <p>1.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하찮은</p> <p>1. 보수적인; 실제보다 적게 잡은</p>

(3) 강도 평가어(gradation)

태도 평가의 세 번째 종류로 ‘강도 평가어’가 있다. 이것은 발화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평가어를 사용하여 세기(force)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초점(focus)을 강화하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세기가 주로 등급 조정이 가능한 선택의 영역이라면, 초점은 얼마나 강하게 원형적(prototypical)인가 아니면 주변적이고 약한가의 영역이다.

〈표 6〉 한국어 강도 평가어

강도 평가(Graduation)			
세기(force)	[extremely] unwise	상향어	올리기(비속어, 욕설)
	[slightly] corrupt	하향어	낮추기(금기어→완곡어)
초점(focus)	a [true] father	강화어	강화하기
	an apology of [sorts]	약화어	약화하기

지금까지 평가어 체계를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아래 4장에서는 위에 제시한 태도 평가, 개입 평가, 정황 평가의 세 평가어 항목을 이용하여 조선일보 댓글러들이 ‘조국’과 ‘진중권’이라는 인물 변수에 대해 어떤 종류의 평가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IV. 조국 사태의 전개

조국 사태(曹國 事態)는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9월 6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극심한 국론 분열이 발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산 되었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사퇴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각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기도 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시위’와 그에 반대하여 ‘문재인 정부를 지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을 맞게 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 의원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을 향해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

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외중에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조국 장관 지지와 조국 장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었고, 이러한 기사들에 달린 댓글에서도 일반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 장관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이나 주제어(언급대상)로 등장하는 문장에서는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가혹하고 신랄한 평가어가 이어졌다.²⁹⁾

한편 조국 사태 내내 조국과 반대편의 진영에 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철회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평론가 진중권이다. 1962년생인 진중권과 1965년생인 조 장관은 같은 해 1982년에 서울대에 입학했다. 82 학번 동기인 그들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던 그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인사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 장관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진중권은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동료 교수인 정경심(조국 교수의 부인) 교수와 같이 근무했었다고 한다. 그때 조국 딸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에 의해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진 교수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민노당 주사파와의 갈등으로 탈당한 뒤엔 고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창당한 진보신당에 합류했다. 2009년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2013년 12월 새로 출범한 정의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다시 탈당계 제출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진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 적격 판정 등 정의당이 보인 일련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낸 것”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교수의 탈당서 제출은 조국 싸움이 좌우가 아닌 위선과 양심의 싸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진중권 교수는 양심좌파이자 진짜 진보”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교수의 탈당에 대해 “무리한 조국 감싸기와 선거법 야합을 거래하는 정의당, 그 결과는 오랜 친구의 결별 통보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두 인물 조국과 진중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기간 동안 양 극단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두 인물에 대하여 흔히 대표적인 보수 신문으로 언급되는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 텍스트에 이들이 어떻게 평가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V. 평가어 분석 결과

본고에서 분석한 조국 관련 조선일보 기사문의 댓글 목록은 총 34개, 진중권 관련 조선일보 기사문의 댓글 목록은 총 6개이다. 여기에 달린 댓글의 수는 각각 361개와 69개이다. 시기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29) 댓글에 달린 비속어, 저속어들은 포털에서 ‘규정’에 따라서 자동 삭제되므로 본고에서도 감정 평가어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2019년 10월 14일까지 66일간이다. 상대적으로 진중권 관련 기사가 조국 관련 기사의 18%밖에 안 되는 것은 조선일보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편중이 평가어의 질(종류)을 연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³⁰⁾ 평가어 분석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 즉 태도, 개입, 강도 평가어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1. 조국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

여기서는 실제로 평가어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예시하기 위해서 조국 기사문 중 하나인, 2020년 10월 14일 「조국, 촛불 순교 그림 올리고 '내년부터 대선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댓글1 진짜 한대 패고 싶은 심정이다
 댓글2 헐~ 조빠꾸기... 아...직 정신 못차리고 환상 속에서 살고 있네... 교도소 또는 정신 병원에 가야 정신 차릴 것 같구나....추미애랑 쌍벽으로 꼴 보기 싫은 놈이다. 뻔뻔하다... 철면피구나.. 창피한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댓글3 저 뻔뻔함이 참 부럽다. 저 정도 얼굴이 두꺼웠어야 뭐라도 한 자리 나도 해 먹었는데....
 댓글4 조국 이 자가 계속 궤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댓글5 검찰개혁을 하는 건 맞는데 당신 같은 이중인격자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 앞에선 거룩한 척을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와도 똑같은 인간 그리고 법꾸라지 아니랄까 봐 불법은 아니면서 그 언저리 수위까지 올라가서 피해 다니는 당신네들이 문제입니다. 어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어쭙잖은 트윗질, 페이스북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댓글6 야 조국아 좀 찌그러져 있어라, 쪽팔리지도 않냐? 허긴 그걸 아는 놈이면 이따위 짓거리를 할 턱이 없지 민생은 개판 5분 전인데 뭐 아직도 검찰개혁이냐?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 니 부모까지 욕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혈압 올라 돌아가실지경이다 상노므시키
 댓글7 양심이 좁쌀만큼도 없는 자구나. 어느 국민이 너를 찍는다고 대선 타령이냐? 나 뿐 짓 많이 했으니 너한테 마음의 빗을 졌다는 달님하고 사이 좋게 영창에나 가거라.
 댓글8 그놈의 촛불 촛불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광장이 무서워서 재인산성으로 막았나 검문 검문 그렇게 이제는 광장이 무섭나 광장이 무섭겠지 되치기를 당할까 봐 수

30) 본고는 '평가어'가 연구 대상이지 평가어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이 연구 대상이 아님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점은 양적 요건을 갖추어 후고의 저서를 기약한다.

- 많은 사람들이 놀이공원 관광지 또 단풍산행 다 막았? %杵償? 왜 유독 그곳만
그래서 정치방역 이라는거야
- 댓글9 참 지랄병도 가지가지. 자기애가 도를 넘네..... ㄹㄹㄹ
- 댓글10 정신과 의학계에서 21세기 신종 정신질환에 대하여 이 인간을 집중적으로 연구
하면 다음의 노벨 의학상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 댓글11 국이! 완전 ㅇㅇ네! 지가 무슨 순교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갑네. 야! 차라리 실
제로 너를 태워서 심지에 불을 붙혀 봐라 그럼 진정성을 믿어주께. 안 그럼 주둥
아리 ㅇㅇ라 선동하지 말고

이 기사의 댓글은 총 11개이며, 그중 몇 개는 하나의 댓글에 하나의 평가어만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지만, 일부는 하나의 댓글에 여러 개의 평가어나 친소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본 고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7> 조국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예시)

	기사문	태도			개입	강도
		1	1-2	1-3		
1	진짜 한대 꽤고싶은 심정이다	감정	슬픔	반감		
2	헐~~ 조빠꾸기... 아...직 정신 못차리고 환상속에서 살고 있네..	행위	존경	불신		
	추미에랑 쌍벽으로 꼴 보기 싫은 놈이다.	감정	슬픔	반감		
3	뻔뻔하다... 철면피구나.. 창피한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행위	존경	불신		
	저 뻔뻔함이 참 부럽다. 저정도 얼굴이 두꺼웠어야 뭐라도 한 자리 나도 해 먹었는데....	행위	존경	불신		
4	조국 이 자가 계속 궤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위	존경	불신		
5	검찰개혁을 하는건 맞는데 <u>당신 같은 이중인격자들이 없</u> <u>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u>	감정	싫증	불쾌감		
6	당신네들이 문제 입니다	행위	인정	부적절		
	그리고 <u>어좁잖은 트윗질, 페이스북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u>	감정	싫증	불쾌감		상향어
7	그냥 사라져라 <u>혈압올라 돌아가실지경이다 상노므시키</u>	감정	슬픔	반감		
7	<u>양심이 좁쌀만큼도 없는 자구나</u>	행위	인정	부적절		상향어
	<u>나쁜 짓 많이 했으니 너한테 마음의 빗을 졌다는 달님하</u> <u>고 사이 좋게 영장에나 가거라.</u>	행위	인정	부적절		상향어
8	그놈의 <u>춧볼 춧볼</u> <u>진글진글하다</u>	감정	싫증	불쾌감		

	기사문	태도			개입	강도
		1	1-2	1-3		
9	참 지 랄병도 가지가지.	행위	존경	불신		
	자기애가 도를 넘네..... ㄷㄷㄷ	행위	존경	불신		
10	정신과 의학계에서 21세기 신중 점진집환에 대하여 이 인 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다음의 노벨 의학상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행위	존경	불신	다성	
11	야! 차라리 실제로 너를 태워서 심지에 불을 붙혀 봐라 그 럼 진정성을 믿어주께.	행위	인정	기만		

전체 조국 기사문 댓글의 분석 절차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각 댓글의 평가어를 선정하고, 그 평가어를 태도, 개입, 강도 평가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태도 평가어는 다시 하위 항목의 종류를 나눠 분석하였다(1, 1-2, 1-3).

셋째, 개입 평가어는 화자 또는 댓글러 본인의 단성적 목소리인지 타인의 의견을 인용하는 또는 개입시키는 다성적 목소리인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강도 평가어는 정도 부사나 강도를 조절하는 문법적 언어 등도 쓰였는지 분석하였다.

□ 태도 평가어

조국 기사에 달린 태도 평가어는 모두 523개로, 그중에서 조국이라는 인물, 혹은 조국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행위 평가어’가 총 445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국에 대한 댓글 작성자 본인의 기분 및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평가’ 관련 평가어가 총 71개로 분석되었다.

445개의 행위평가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 평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부적절’에 해당하는 평가어가 217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평가 대상의 행동이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사회적 인정의 평가어 진실과 기만 중 기만이 78개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유능함과 무능함에 대한 평가어 중 무능의 평가어가 69개, 사회적 존경에 대한 평가어 중 기대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불신의 평가어가 68개로 분석되었다. 조국의 행위가 평범하지 않고 특이하다는 특이 평가어도 12개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행위 평가어 중 긍정적인 극성 평가어는 단 한 개밖에 없었다. 그것조차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중간에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평가어이며, 전체 텍스트를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어로 볼 수는 없다.

조국 기사문에 대한 댓글에는 또한 감정 평가어의 비율도 적지 않은데, 그 대부분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어 중 부정의 평가어에 해당했다. 감정 평가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평가어 유형은 행복과 슬픔 중 슬픔의 평가

어로 45개였다. 대체로 조국으로 인한 분노, 혹은 나라의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등을 표현하는 평가어였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몰입과 싫증의 평가어 중 싫증의 평가어가 25개 나왔다. 조국이 지속적으로 신문에 언급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지겹거나 질린다는 표현 등이 많았다. 감정 평가어 중 긍정에 해당하는 극성 평가어는 행복의 평가어 단 1개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 기뻐하는 평가어에 해당하였다.

현상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정황 평가어는 단 7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도 대체로 조국 가족 소유의 차량에 대한 평가, 혹은 조국의 명예에 대한 평가, 혹은 조국과 그의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유용성에 대한 평가어로 무용함을 나타내는 평가어가 3개였다. 이는 역시나 조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해당했다. 그 외에는 영향력 중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평가어가 2개, 혐오에 대한 평가어가 1개, 그리고 불균형에 대한 평가어가 1개 나타났다.

□ 개입 평가어

개입 평가어에서는 태도 평가가 각각 타인의 의견을 차단하는 단성적 목소리인지, 혹은 타인의 의견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다성적 목소리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결과 총 523개의 평가어 중, 485개의 평가어가 단성적 목소리로 나타났으며, 38개의 평가어만이 다성적 목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댓글러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매우 단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강도 평가어

강도 평가어는 태도 평가어에 각각 '정말, 매우, 아주'와 같이 평가의 세기를 높이는 '상향어'와 '약간, 조금'과 같이 평가의 세기를 낮추는 '하향어', '특히, 무엇보다'처럼 평가의 초점을 강화하는 '강화어', '대충, 쯤, '과 같이 평가의 초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약화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기'의 평가어

〈표 8〉 조국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 결과

태도(523)						개입(523)		강도(523)	
행위(445)		감정(71)		정황(7)		단성 (485)	다성 (38)	세기(59)	초점(7)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적절(0)	부적절(217)	행복(1)	슬픔(45)	유용	무용(3)			상향(58)	강화(7)
정직(0)	기만(78)	몰입(0)	싫증(25)	영향(2)				하향(1)	약화(0)
유능(0)	무능(69)				혐오(1)				
신뢰(0)	불신(68)				불균형(1)				
평범(0)	특이(12)								
극성(1)									

는 모두 59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가의 세기를 높이는 ‘상향어’가 총 5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의 세기를 낮추는 ‘하향어’는 1개가 나타났다. 반면 얼마나 원형적인가를 나타내는 ‘초점’의 경우는 모두 7개가 나타났는데 이 7개 모두 대상의 초점을 강화하는 ‘강화어’가 7개 나타났다. 아래는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2. 진중권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

다음은 진중권 기사의 댓글 목록 중 하나를 예시하기로 한다. 2019년 12월 19일에 올라 온 「진중권, 동양대에 사표 제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목록이다.

- 댓글1 조국 사태는 많은 모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지요~ 조국 정경심 백원승 황운화 등과 같은 극히 뻔뻔한 인물들 / 유시민 박지원 공취영 주권우 과 같은 이상한 정신세계 속에 있는 가없는 모습들/ 윤석열, 박형철, 김태우 등과 같은 그래도 권력에 물들기보다는 바르게 세상을 지켜보려는 모습들 / 진중권, 김경율, 이견리 등 그나마 바르고 곧은 사람들/ 송이권, 문이상, 이인형, 김이겸, 설운, 이애찬, 손약규, 박주민, 윤도환, 유제수..... 많은 씨레기들/ 그리고 *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민주당과 현 정권의 민낯~ 좌익의 특성 및 폐퇴한 모습 이런거를 보였죠~
- 댓글2 진중권 이런 좌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바로 손절과 꼬리짜르기가 특기죠~ 특히 진중권처럼 편향된 인간이 조국을 손절한 이유는! 바로 동양대 교수 정경심의 최측근 교수동료이죠~ 조국일가의 범행을 검찰과 언론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여론이 분노로 들끓으면 결국 수면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죠. 자신도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손절하고 도망가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평소 정의구현은 안중에도 없고 좌파진영을 위해 싸구려 궤변을 쏟아내던 극좌편향 진중권이 갑자기 착한 척을 한다? ㅋㅋㅋ 두고봐야 합니다. 물고빨고 할 일이 아닙니다.
- 댓글3 그래두 진보논객 진중권은 정의를 아는 친구군 조국은 앞으로 진보란 글자도 쓰지마라 아무리 자기편이라해도 아닌건 아니라 말할 줄아는 것이 정의고 지성인이다 가짜 진보들이 날뛰고 대한민국을 뒤로가게 하는군아
- 댓글4 아직은 쑈자유, 정의당 탈당하면 완전한 자유인 !
- 댓글5 조국이 진중권 반만 닮았으면 한다. 학자, 지성인의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시길...
- 댓글6 진.중.권. 군 ~ 늦은 감이 있지만.....〈 좌빠 ! 탈출은 지능 순 〉 물론 거시기 〈 정.의.당.도 탈당해야 완결 판!!
- 댓글7 다음 수순은 좌파 진보진영에서 사퇴했으면 참 좋겠다
- 댓글8 중복좌파들도 그들이 상표처럼 내세우는 반일 감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일본말

은 서슴치 않고 사용하는 이중성이 있구만. 진중권 이녀석은 잔머리 굴리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절친 조국씨와 한 묶음으로 몰락하기 싫은 것이다. 참 교활하다.

- 댓글9 진실만이 그대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리라!
- 댓글10 내가 돈이 없지..자존심이 없냐? 비리로 돈 밝히고 부정하는 거 그냥 몽개고 볼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이 살아있네
- 댓글11 진중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 자유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최고의 교수가 되길 기대한다
- 댓글12 공지영은 진중권이 오랜 독일 유학에도 박사학위가 없는 것을 비아냥 댔다! 언제 ‘씨알의소리’ 함석헌이 학위가 있어 대학에서 강의했나?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대한민국 학계의 고질병. 논문 표절 행위! 지금 曹國의 석,박사 학위 논문도 표절 혐의로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재검중에 들어 갔고 , 아마 공지영이 학위 논문도 조사해보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지? 글고 내 생각엔 진중권의 경우, 독일 유학시 양심적으로 독창적인 논문 쓰려다 학위 취득 못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진중권 교수! 철이 좀 덜던 것 같아서 그동안 별 무호감이었는데 이번 조국이 사태 때 그래도 바른 소리하는 걸보고 다시 보게됐소! 건필을 기대하오!
- 댓글13 진중권의 용기있는 결단을 존중한다 자유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최고의 교수가 되길 기대한다

위 13개의 댓글을 본고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아래 예시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단 2개의 기사문을 비교했음에도 조국과 진중권 기사문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평가어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진중권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예시)

	기사문	1	2	3	개입	강도
1	진중권, 김경욱, 이진리 등 그나마 바르고 곧은 사람들	행위	인정	적절		약화어
2	진중권 이런 좌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바로 손절과 꼬리짜르기가 특기죠~	행위	존경	불신	○	
	진중권처럼 편향된 인간이	행위	존경	불신		
3	진중권이 갑자기 착한척을 한다? ㅋㅋㅋ 두고보아야합니다. 물고빨고 할 일이 아닙니다.	행위	존경	불신		
	진보논객 진중권은 정의를 아는 친구군	행위	인정	적절		
3	아무리 자기편이라해도 아닌건 아니라 말할줄아는것이 정의고 지성인이다	행위	인정	신뢰	○	

	기사문	1	2	3	개입	강도
4	아직은 <u>쑤자윤</u> , 정의당 탈당하면 완전한 자유인 !	행위	인정	적절		하향어
5	<u>학자</u> , 지성인의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시길...	행위	인정	적절		
6	진.중.권. 군 ~ <u>낮은 감이 있지만.....〈 좌빠 ! 탈출은 지능 순 〉</u> 물론 거시기 〈 정.의.당.도 탈당해야 완결 판!!	행위	인정	적절		하향어
7	다음수순은 좌파 진보진영에서 사퇴했으면 <u>참 좋겠다</u>	감정	행복	호감		상향어
8	진중권 이녀석은 <u>잔머리 굴리는 천재</u> 이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주시 해야 한다	행위	존경	유능		
	다음 <u>행동을 주시 해야 한다</u>	행위	존경	기만		
	<u>참 교활하다</u>	행위	존경	기만		상향어
9	<u>평가어 확인 X</u>					
10	내가 돈이 없지.. <u>자존심이 없냐?</u> 비리로 돈밖히고 부정하는 거 그냥 뭉개고 볼수 없다는 <u>학자적 양심이 살아있네</u>	행위	인정	적절		
11	진중권의 <u>용기있는 결단</u> 을 존중한다	행위	존경	신뢰		
12	내 생각엔 진중권의 경우, 독일 유학시 <u>얕심적으로</u> 독창적인 논문쓰려다 학위취득 못한건 아닐까?	행위	존경	신뢰	○	
	이번 조국이 사태 때 그래도 <u>바른 소리하는 걸보고</u> 다시 보게됐소!	행위	존경	신뢰		
13	진중권의 <u>용기있는 결단</u> 을 존중한다	행위	존경	신뢰		

□ 태도 평가어

진중권 기사문의 댓글 69개에서 분석된 태도 평가어는 총 71개이다. 이 중에서 진중권이라는 인물 혹은 진중권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행위 평가어’가 63개로 나타났고, 진중권에 대한 댓글러 본인의 기분 및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평가어’가 8개로 분석되었다. 반면 진중권에 대한 댓글 중 ‘정황 평가어’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행위 평가어’ 63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대상이 되는 인물, 인물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고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적절’이 총 31개가 해당 되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대상이 되는 인물, 인물의 행위를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신뢰’에 해당하는 평가어가 18개 나왔다. 흥미롭게도 그다음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이 ‘신뢰’의 반대에 해당하는 ‘불신’의 평가어가 5개가 나왔다. 이것은 원래 좌파 계열 인사로 분류되던 진중권의 행위에 대해 조선일보의 댓글러들이 여전히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인다. 그 아래로는 해당하는 인물과 인물의 행위가 능력 있고 평가하는 ‘유능’에 해당하는 평가어가 5개, 행위자 및 행위가 거짓이라고 평가하는 ‘기만’의 평가어가 2개, 그의 행위가 평범하지 않고 특이하다는 ‘특이’ 평가어가 2개 나왔다. 그 외에 그

의 행위가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정직’의 평가어가 1개 나왔다. ‘감정 평가어’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싫증’의 평가어로 총 25개가 분석되었으며 행복의 평가어는 8개가 나타났다.

□ 개입 평가어

총 71개의 평가어 중 54개가 단성적 목소리의 개입어, 16개가 다성적 목소리의 개입어로 나타났다. 후자가 약 30%에 해당한다. 조국의 댓글과 차이가 나는 점은 진중권 댓글의 댓글러들 중 70% 정도가 조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밝히지만, 약 30% 정도는 자신의 주장을 외부 의견과 동일시하거나, 외부 의견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강도 평가어

강도 평가의 경우는 평가자가 자신의 태도 평가의 세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 부사 및 표현, 그리고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정도 부사 및 표현의 존재 유무로 분석하였는데, 자신의 표현 및 평가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세기’의 평가어는 모두 23개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상향어’가 12개, ‘하향어’가 11개로 분석된다. 반면 평가 대상이 얼마나 원형적인가에 대해 표현하는 ‘초점’의 평가어의 경우에는 총 4개로 ‘강화어’는 3개, ‘약화어’는 1개가 나타났다. 아래는 <표 10>은 앞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0> 진중권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분석 결과

태도(71)						개입(71)		강도(71)	
행위(63)		감정(8)		정황(0)		단성 (54)	다성 (16)	세기(23)	초점(4)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적절(31)	부적절(0)	행복(8)	슬픔(0)					상향(12)	강화(3)
정직(1)	기만(2)	몰입(0)	실증(25)					하향(11)	약화(1)
유능(5)	무능(0)								
신뢰(18)	불신(5)								
평범(0)	특이(2)								
극성(1)									

진중권 관련 기사의 댓글 중 특기할만한 점은 먼저 조국 기사에 나타난 평가어가 대체로 ‘부적절’, ‘무능’, ‘불신’, ‘슬픔’ 등 부정적인 극성의 평가어로 구성되었던 반면 진중권 관련 기사 댓글의 경우에는 과반에 달하는 수가 긍정적인 극성 평가어이고, 적지 않은 수의 부정적인 평가어도 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선일보의 독자들은 진중권에 대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국 기사 댓글의 대부분이 상향 및 강화로 자신의 평가 및 감정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진중권 기사 댓글에서는 ‘일말의 양심’, ‘조금씩 바뀌다’와 같이 자신의 평가를 약화하거나 하향시키는 평가어가 11개로 상대적으로 더 자주 등장하였다. 이 역시 조선일보 독자들이 진중권에 대해 의심하며 아직 완벽히 신뢰하거나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개입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조국에 대한 태도 평가어 523개 중 단 38개, 즉 7%에 해당하는 수치만이 다성적 목소리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단성적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진중권에 대한 평가어의 경우에는 약 23% 정도가 다성적 목소리를 보여준다. 이는 조선일보 댓글러들이 조국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단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비해서, 진중권에 대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객관화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VI. 결 론

지금까지 체계기능언어학의 담화분석 방법론 중 하나인 평가어를 조국과 진중권 관련 조선일보 기사문의 댓글(조국 361개, 진중권 69개)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66일 간의 댓글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해당 댓글에서 실제로 ‘인물’과 ‘평가어의 종류’가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고는 첫째로 한국어에 맞는 평가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입 평가어, 태도 평가어, 강도 평가어의 어휘 목록을 제시해 보았다. 둘째로, 이에 근거하여 해당 댓글에 달린 평가어들을 개입, 태도, 강도 평가어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셋째로, 분석 결과, 조국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종류와 진중권 기사문 댓글의 평가어 종류가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이 해당 댓글을 쓰는 댓글러들의 평가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태도 평가어는 두 기사문 모두 행위 평가어가 감정 평가어나 정황 평가어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자는 부적절(217), 기만(78), 무능(69), 불신(68), 특이(12) 평가어가 적절(1), 정직(0), 유능(0), 신뢰(0), 평범(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에 반해 후자는 적절(31), 정직(1), 유능(5), 신뢰(18)가 훨씬 많았고, 부적절(0), 기만(2), 무능(0), 불신(5), 특이(2) 평가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입 평가어에서는 전자와 후자 모두에서 타인의 의견을 차단하는 단성적 목소리가 많았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댓글러 자신의 주장을 외부 의견과 동일시하거나 외부 의견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다성적 목소리가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점은 전자의 다성적 목소리가 7.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강도 평가어는 전자에서 세기어가 11.2%(523/59개)이고 후자가 32%(71/32개)로 나왔고, 초점어는 전자에서 1.3%(523/7개), 후자에서 5.6%(71/4개)가 나왔다. 두 인물 모두 강도 평가어 중 세기어의 선택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후자에서 더 그 빈도가 높았다.

본고의 평가어 분석은 조국 기사문 댓글 361개, 진중권 기사문 댓글 69개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양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를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본고처럼 ‘인물’과 ‘댓글 텍스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조선일보 자체, 댓글러 자체의 성향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힌다.

이 글은 ‘댓글’이라는 장르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조국’과 ‘진중권’이라는 인물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평가어를 사용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의 의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미승혜, 「문학 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 성향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반현, 「한국 신문 사설의 정치적 성향 분석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4: 3, 87-92, 2018.
- 우경조, 「에코페미니즘적 주제의식 관점에서 본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 분석 - 체계기능문법(SFG)의 '동사성(Transitivity)'과 '평가어(Appraisal)'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경림 · 강대중 · 정제영,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다룬 신문 사설의 프레임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30 No.2, 2020.
- 이관규 외,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이주리에, 「한일 기사문의 평가어(appraisal) 번역-개입(engagement) 표현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7: 2, 2015.
- 진염평 · 진연, 「태도평가 관점에서 본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 *한국어문교육* 31, 2020.
- 한정한 외 옮김, 『Halliday의 기능문법입문: 체계기능언어학』, 박이정, 2022.
- 홍은영, 평가어를 중심으로 한 『제인 에어』(Jane Eyre) 번역 분석.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황시내,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공손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Eggs, S. & D. Slade, *Analysing Casual Conversation*. London: Cassell, 1997.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Routledge, 2014.
- Hunston, S., & Thompson, G.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Lipson, M. Exploring Functional Grammar. In D. R. Miller (Ed.), *Functional Grammar Studies for Non-Naive Speakers of English*, Bologna: University of Bologna, 2014.
- Martin, J. R. · White, P. R.,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5.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7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Co-Relation between ‘Tenor’ and ‘Language of Evaluation’

- Examining the Internet Comments of Cho Ku and Jin Joong Kwon -

Han, Jeonghan* · Um, Yunsik**

This article examines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its relationship to the “tenor” aspect of discourse. The aim is to show the connection between the speaker/author and their appraisal of the object or proposition being discussed. According to Thompson & Hunston (1999), appraisal refers to expressions that express the attitude, status, perspective, and emotions towards the topic being discussed.

This paper studies the use of Appraisal in internet comments related to articles in the Chosun Ilbo during the “Cho Kuk incident.” To do so, the paper first established a vocabulary list of Engagement, Attitude, and Graduation to construct a Korean-suitable Appraisal system. Then, the Appraisal in the internet comments wa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ypes of Appraisal between comments on the Cho Kuk articles and the Jin Joong-kwon articles, reflecting the evaluation tendencies of the commentators.

Judgment was the most common Attitude expressed in both articles, with a higher frequency in the Cho Kuk article for words such as “impropriety (217),” “dishonest (78),” “incapacity (69)” and “trust (0).” In contrast, the Jin Joong-kwon articles had more instances of “propriety (31),” “honest (1),” “capacity (15)” and “trust (0).”

Regarding Engagement, both articles had a high proportion of “monogloss” voices that rejected others’ opinions. However, the Jin Joong-kwon article had a higher proportion of “heterogloss” voices that equated commenters’ arguments with external opinions or claimed that external opinions were not different from them (30%) compared to the Cho Kuk article (7.8%).

In terms of Graduation, the Cho Kuk article had a higher proportion of “Force” words (11.2%) compared to the Jin Joong-kwon article (3.2%), while the latter had a higher proportion of “Focus” words (5.6%) compared to the former (1.3%). Both articles had a high preference for “Force”

* Dankook Univ.

** Dankook Univ.

words, but the Jin Joong-kwon article had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Focus” words.

[Keywords] appraisal, news paper comments, tenor, attitude, engagement, gradu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